

하루를 시작하며



고 나 해  
시인

이번 폭설로 제주도 농업인들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다. 특히 월동 무는 수확을 막 시작하는 시점에서 냉해 피해를 받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에 김형신 최고농업기술명인과 인터뷰했다.

김형신 최고농업기술명인은 “두 번까지의 폭설은 농작물이 버틸 만할 겁니다. 하늘은 봄, 땅은 아직 겨울인 이 절기의 교차점에서 1월 15일까지 추운 날씨가지만 작물은 버틸 힘이 있어 2월 4일까지 눈이 내려도 참을 만합니다. 문제는 이 사이에 폭설이 3회 연속되면 농작

폭설과 제주산 월동작물 그리고 최고농업기술명인

물 피해가 아주 크겠지만 이번 같은 최강 한파는 거의 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눈이 오더라도 조금. 이번에 올 만큼 왔다는 게 총량의 법칙에 근거한 제 생각입니다.

대량 생산될 월동 작물의 경제로 인한 가격 파동 우려 역시 전라도에 역사상 최대로 눈이 내렸기 때문에 그쪽 월동작물 기반이 무너져서 제주도가 반사 이익을 갖지 않겠나 싶어요. 이 농업이라는 게 참, 상대방이 안 돼야 자기가 행복하게 되는 그런 유통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우리나라 국민이 쓸 수 있는 채소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주도 농업인 대다수의 숙원인 물류비 지원문제도 무나 양배추가 부피에 비해 운송료가 50~60%를 차지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어요. 이제는 물류비 싸움이라 해

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서 지역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국비 예산 마련에 접근해야 하는데 그 방식이 다르니까 자꾸 물류비 지원이 끊기는 것이지요.

해남이나 진도, 완도는 도서 지역으로 지정돼 물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반해 제주도는 소품종 대량 생산을 요구 해놓고 물류비를 묶어 버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직불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생산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직불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중간 직불제로 인해 미리 폐기를 시작해서 소비 자극이 없어 가격 폭락으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양배추든 무든 당근이든 월동채소는 제주도만 갖고 있습니다. 전국의 80%를 잡고 있는데도 생산량 조절을 못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자체적으

로 농협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조금씩 물량을 조절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정부와 제주도가 제대로 노력만 한다면 이번 한파에도 올해 제주산 월동 작물의 길은 그리 험난해 보이지 않다.

그러나 최근 뉴스는 제주도와 서울시가 월동 무, 양배추, 조생 양파에 대한 추가 물류비 지원을 올해 말 종료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그 비용을 농업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인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과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제주산 농산물 통합 물류체계 구축지원’에 관한 국비 예산 마련 계획은 시작만 있고 종적이 묘연하다.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농민들만 애타는 연말이다.

사설

제2공항 용역 비공개, 공금증만 키운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은 지난 10월 말 완료됐다. 이 용역은 지난해 10월 발주된 이후 연장을 거듭한 끝에 마쳤다. 문제는 용역이 끝난 지 두 달 가까이 됐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공금증만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오영훈 지사는 2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2024년 신규 국비사업 발굴 보고회에서 제2공항 검토 용역 결과 공개가 늦어지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검토 용역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국토부가 아직까지 제주도에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오 지사가 관련 용역 결과 공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

난달 도의회 도정질문에 출석해 국토부에 용역 결과 공개를 강력 촉구한 바 있다. 오 지사는 “제주지역 최대 갈등 사안을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토부의 행태가 납득이 안된다. 제2공항은 5조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국책사업이다. 그런 만큼 제2공항에 대한 찬·반을 떠나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 특히 제2공항 건설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검토 용역은 숨김없이 밝히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검토 용역이 마무리됐는데도 국토부는 “검토중”이라는 입장만을 반복하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 지사의 지적처럼 환경부와 국토부가 해당 지역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검토 용역 결과를 협의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고향세, 시행 초기 ‘성패’ 가른다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첫해 얼마큼 성과를 낼지 벌써 초미 관심이다. 국내 최초의 제도이면서 이 시행할 일본의 놀라운 성과 탓에 각 지방자치단체들 일찌감치 기대를 키우는 현실에서도, 도가 고향세 유인의 핵심인 담뚝 선정까지 마친 상태라 시행 초기 차별화된 홍보 전략에 ‘성패’를 좌우할 일만 남겼다는 평가다.

도는 최근 고향사랑기부제의 담뚝 품목·공급업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 발표했다. 담뚝품은 예상대로 감귤 폐지고기 친환경농산물 고사리 갈치 등 제주산 농수축산물과 제주화장품 관광·체험서비스 같은 지역특색 상품을 우선으로 꾸며졌다. 15개 공급업체가 계약과 전산 등록 등 절차를 거치면 새해부터 고향세 기부자에 대한 담뚝품 공급을 맡게 된다.

고향세가 도입됐다해서 당장 출항인사나 제주와 인연있는 사람들로부터 기부반은 행렬에 ‘붐’을 이룰 것이란 기대는 금물이다. 제도가 연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 시 일정액 세액공제 예대 기부액의 30% 담뚝품을 받을 수 있어 ‘당근’으로 작용하겠지만 모든 지역서 유치 경쟁을 벌이는 데다 국민 호응도 미지수다.

제주만의 차별화된 고향세 유치 전략이 절실하다. 재외도민 65만명과 명예도민 2000여명이 제주에 기부금을 내고 싶도록 총출동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주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기부자의 참여, 차별화된 기부금 사용처, 최고 품질의 담뚝품 보담 등에 제도 초기부터 최상의 유인책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도정이 이번 기회를 지역경영의 새 시대를 연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열린마당

소방차 길터주기,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



강 창 우  
서귀포소방서 119구조대

평소 우리는 빈번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소방차를 볼 수 있다. 소방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는 긴급한 구조·구급·화재가 발생한 상황이다.

소방관서는 매일 소방 출동로 확보 훈련 및 소방 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소방차가 재난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길 터주기같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소방 차량 및 긴급 차량 접근 시 길터주기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두 번째, 일반통행로에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세 번째, 편도 1차선 도로에선 우측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해 운행 또는 일시정지한다.

네 번째, 편도 2차선 도로에선 긴급 차량이 1차선으로 통행하도록 일반 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한다. 다섯 번째,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에선 일반 차량은 1·3차선으로 양보해 긴급 차량이 2차선으로 통행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건물목에선 긴급 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건물목에서 잠시 멈춘다.

만약 주변에서 소방 차량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면 위와 같이 운전하면 된다. 긴급 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은 우리의 가족과 소중한 생명,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뉴스-in

오영훈 제주지사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

“제주기록원 설립 적극 노력”

○...오영훈 제주지사가 27일 청사 내 기록물보존시설을 찾아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제주기록원 설립 의지를 피력.

오 지사는 기록물 보존 시설을 둘러본 후 “이번 방문을 통해 기록이 곧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제주도의 역사 사료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도민들이 제주도의 역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

이어 동행한 강철남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장에게 “앞으로 제주도의회와 함께 협력해 제주기록원 설립 관련 일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피력.

“학교체육관 이용 부담 없이”

○...최종 확정된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학교체육관 사용료 부담 최소화’ 이행을 위해 내년부터는 해당 시설의 시간당 이용료를 3000원으로 인하(한라일보 12월 9일자 5면)하는 것으로 결정.

이는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학교체육관 사용료 최소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수정 가결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동지역 대규모 체육관 사용료와 비교했을 때 80%가 내려가는 등 대폭 인하.

제주도교육청은 27일 이런 내용을 알리면서 “학교체육관 등 체육시설 사용료 부담을 낮춤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 고
박태경(시리우스호텔) 아버지 밀양 박공 응조(前 초등교장·향년 92세)
계서 서기 2022년 12월 26일 06시 40분 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2년 12월 28일(수요일)
발인일시: 2022년 12월 29일(목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중앙병원장례식장 4분향실
장 지: 국립 제주호국원
부인 김창렬
아들 박태범
태경 며느리 김명선
딸 박경희 사위 조성신
경자 강경중
경옥 고형수
손 박철수 외손 조재훈
호상 박양조
연락처: 박태경 010-5269-0569
김명선 010-5238-5557
조성신 010-8662-3239

부 고
김철희(제주축협) 아버지 김해김공 영기(향년 88세)계서 서기 2022년 12월 26일 22시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2년 12월 28일(수요일)
발인일시: 2022년 12월 29일(목요일) 오전 8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빈소
장 지: 양지공원
부인 김석희
아들 김철희 며느리 문정심
딸 김미영
진영 사위 금성욱
선영 김수철
선옥 부용규
연락처: 김철희 010-2956-6115
김미영 010-9727-3082
김진영 010-2705-8127
김선영 010-7706-5836
김선옥 010-2697-3862
김성욱 010-2704-8127
김수철 010-4303-8865
부용규 010-4692-1795

분실공고
분실물의 종류:
오라골프장 회원권
분실물의 번호: MO-110170
상기 골프장 회원권을 분실하였기에 분실물에 대한 무효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위 공고인 김성규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품의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학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총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복비: 50,000원
전화 010-7301-7737